슈발리에의 해 웹사이트

슈발리에의 해 위원회는 슈발리에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구축된 새로운 웹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것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웹사이트의 하위 도메인입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려면 jchevalier.ametur-msc.org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 링크를 클릭하면 "홈 페이지"로 이동하여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슈발리에의 해 관련 소식, 이미지, 기고문 및 기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해시태그 #jchevalier200을 사용해서 슈발리에의 해 관련 게시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슈발리에의 해를 기념하는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에 대한 뉴스, 사진 및 비디오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나라, 관구 혹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슈발리에의 해 개막을 기념했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 하에, 우리는 보내주신 사진, 비디오 및 자료를 슈발리에의 해 웹사이트 소식란에 올릴 것입니다.

공유하기 원하는 소식, 자료, 사진과 비디오를 슈발리에의 해 위원회 멤버인 하비에르 트라페로에게 이메일로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municacion@misacores.org

슈발리에의 해는 전 세계 슈발리에 가족이 다 함께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슈발리에의 해에 관한 여러분의 소식,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이 특별한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슈발리에 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대신학교에서 쥴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그는 진지해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묵해졌습니다. 쥴이 특히 착한 목자이신 예수성심을 발견한 후,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가장 마지막 말씀"(SCJ 76)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슈발리에는 더 편안하고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슈발리에 신부님이 항상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려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샤를 삐쁘롱, 창립자의 생애에 관한 글, 34쪽)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당신의 마음을 따를 것입니다. 오직 한 마디 말씀이면 충분했을 테지만,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에 질문을 던지셨고, 그분의 마음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굿간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작은 아이로 태어나야 한다고 대답합니다...(Ftes MR 35).
슈발리에 신부님은 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계획하셨다"(예수성심, 3쪽)고 말하며 "하느님의 아들은... 연민과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예수성심, 209쪽)고 덧붙입니다.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예수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품에서 잉태되자마자,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은 곧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의 인격과 일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당신의 본성과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느님처럼 만드시고, 그분의 은사와 은총과 우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M I 120).

육화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머리'(바오로 사도), 혹은 슈발리에 신부님이 덧붙여 말하듯, '마음'이신 하나의 몸이 될 때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의 거룩한 인간성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는 실재적인 몸인 그분의 신비체인 교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진실로 이 거룩한 마음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성심 81).

200 쥴 슈발리에, MSC
선교 열정을 마음에 품은 이
1824-2024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예수성심의 어머니의 부드러운 인도 아래 모든 마음을 그분의 마음처럼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계속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여,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상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육화한 당신 마음이 되라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이달의 기도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
당신의 성심은 하느님의 마음이시며,
자비, 연민, 용기, 힘의 원천이십니다.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마음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슈발리에 가족 구성원들과 친교를 나누며
이 슈발리에의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이
모든 곳에서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소서!
아멘.

(MSC 수도회 150주년 기념
9일 기도 소책자, 11-12쪽)